

가을 정취와 함께 문화행사 마음껏 즐기세요

내일 '10월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2시간 늘려 5~9시로

김주영 작가 북 콘서트 인터넷 중계

강신주 철학 강의·한센인 음악회...

풍성한 문화행사... 입장료 할인 혜택도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뮤지컬 '달·곰·달동네 콤플렉스'



철학자 강신주



색소폰 연주자 류상호

가을의 중반 각종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며 문화예술행사들이 만개한 가운데 28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진행돼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달 행사부터는 영화관람 할인 혜택 시간을 확장하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문화융성위는 기존 영화관 할인혜택이 평일 오후 6~8시에만 적용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롯데시네마 광주·수완·충장로점, 메가박스 첨단·콜럼버스하남·광주(충장로)·전대·콜럼버스 상무점 등 8곳에서 이 시간 동안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특종 랑체살인기', '마선'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집들이 콘서트'는 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 씨의 고향인 경북 청송군 작가의 집필실에서 김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와, 한복디자이너 이효재 씨의 작업실인 성

북동 '휴재'에서 이자람 밴드가 참가한 콘서트가 동시에 개최된다. 공연 실황은 네이버를 통해 볼 수 있다.

각종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도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5층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이날 오후 7시30분 '베리우스 스트링 콰르텟' 현악 4중주팀의 작은음악회가 열린다. 바이올린 윤여진·이수아, 첼로 이수정, 비올라 이기선이 출연,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제14번 d단조' 등을 들려주며 가을 밤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문의 062-670-7945.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뮤지컬 '달·곰·달동네 콤플렉스' 입장료를 50% 할인된 가격(1만5000원)에 즐길 수 있다. 이 뮤지컬은 달동네의 허름한 도서대 여점을 배경으로 로또 당첨을 꾸꾸는 청춘들의 삶과 사랑을 버무린 작품이다.

중앙아트홀에서는 연극 '체인징 파트너'를, 기분좋은 극장에서는 '수상한 흥신소 2탄'을 4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

또 남구문화회관은 영화 '인투 더 스톰(Into the Storm)'을 오후 7시부터 무료 상영하며 광산문화회관은 철학자 강신주를 초청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가-삼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주제로 무료 인문학 강의를 개최한다. 입장권은 접수이 틀만에 마감됐지만 인석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 100명에 한해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본관 전시실과 로비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임종영 학예연구사가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뜨개질 이야기'라는 주제로 미술작품 감상을 진행한다. 이어 자연순 공간디자인 연구소 대표의 피아노 연주회 '2015 Garden of Memory'가 열린다. 문의 062-613-7143.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오후 3시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한 가을음악회가 개최된다. 색소폰 류상호,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가수 김백현·유미랑·니또 등이 출연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베사메무쵸',

'My destiny'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가요, 팝송,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문의 061-832-0003.

국립미술관은 인문학 강의 'GO!GO! 인문학, 박물관·미술관을 탐하다'를 진행한다. 초·중학생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이상필 동산대교수가 '팝아트'에 대해 알려주고 오후 4시부터 윤은주 전남교 미술교사가 '마티에르에 담은 모더니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문의 062-232-7335.

우재길미술관도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을 초청해 오후 3시부터 '관찰-잘 보는 것이 힘이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고 은암미술관은 성인대상 무료체험프로그램인 '미술관 왔수다' 9회차 행사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문의 우재길미술관 062-224-6601, 은암미술관 062-231-5299.

이외에도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은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유장영씨

완도 출신...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역임

전남도는 26일 전남도립국악단 신임 예술감독에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을 역임한 유장영(57)씨를 위촉했다.



완도 출신으로 1988년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입단 후 학예연구실장을 맡았던 유 감독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관현악단장을 맡아 전북도립국악단을 이끌었다. 퇴임 전에는 국악원 예술고문을 맡았다.

유 씨는 '창극 시트콤-옥이네', '전북브랜드 뮤지컬-춘향', '향토 뮤지컬-신 공쥐팔리던' 등의 작품을 작곡하고 지휘감독했으며 전통예술 분야의 현대화와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음악학과에서 작곡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으며 한국음악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유 예술감독은 "진도아리랑과 같이 민족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민요 개발과 전남도립국악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공연을 준비할 것"이라며 "단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원칙을 지키며, 전통예술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지역 여성 경력유지 개선안 모색

광주여성재단 '정책현장 모니터링' 포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27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광주지역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강현아 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광주지역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보현 광주시의원, 이병훈 노무사,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황인자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이 참석해 지정토론이 열려 약 50분동안 정책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도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마련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앞장 선 지역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했다. 062-670-0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화백 유족 오늘 입장 발표

고인에 대한 예우 등 정부에 요청할 듯

지난 8월 사망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27일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가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천 화백의 장남 이남훈(건축가) 씨 부부,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교수, 사위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교수, 며느리 서재란 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배 변호사는 "유족들이 고인에 대해 예우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활동 실적이 미미했고 사망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천 화백에 대해 금관문화훈장을 즉각 추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천 화백은 지난 198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춤으로 전하는 인문학-女帝 소서노' '돋움무용단' 27·28일 광주 씨어터 연바람

'춤, 인문학을 만나다.' 광주여대 박선옥(사진) 교수가 이끄는 돋움무용단은 지난 2012년부터 '춤으로 전하는 인문학'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자료원의 시민교육 프로젝트인 '인문학춤 읽기'와 결합해 공연을 준비했다.

27일과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 씨어터 연바람에서 열리는 '춤으로 전하는 인문학-여(女) 제(帝)'는 역사 속 인물인 '소서노'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단체 신재호가 '조선상고사'에서 '조선 역사 유일의 장엄 여대왕일 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칭한 소서노의 이야기를 젊은 안무가들이 다양한 춤으로 풀어냈다.

박교수가 소서노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강의하며 '불(火)'을 주제로 정주희·김혜미·송아름씨가, '물(水)'을 주제로 김지나·박선영·김소리씨가 다양한 안무를 선보인다. 출연진은 김혜연·권모란·김소리·서지영·문다영·윤유정씨 등이다. 공연장 로비에서는 전지도 선보인다. 문의 062-950-37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이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